

# 다도해 풍광 속 '시를 위한 시간'

진도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28~31일 해변시인 창작학교 개설  
시인 특강·시낭송·시화 그리기  
프로그램 다채...차박·캠핑도 가능



시에그린 시화박물관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박물관이다. 내부 전시실 모습. <시에그린 시화박물관 제공>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진도군 임회면 죽림리)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우리나라 최초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여귀산 미술관과 진도수석박물관도 있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야외에는 한국의 대표적 조각가인 양두환의 유작과 발달목, 배현, 박주부 조각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드넓은 다도해와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에서 '해변시인 창작학교'를 개설해 눈길을 끈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4일 열리는 이번 해변시인 창작학교는 휴가 기간과 맞물려 휴식과 힐링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와 진도군이 주최하고 경기대와 광주여대, 진도교육지원청, 죽림초등학교, 동구엔지니어링이 후원한다.

이번 해변시인 창작학교 학교장은 나태주 시인이, 집행위원장은 정일근시인과 오판주 시인이 맡았다.

먼저 28일(오후 2시 30분) 입소식을 한 후에는 박물관과 미술관 견학을 할 예정이다.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진도수석박물관, 여귀산 미술관을 둘러보고 '꽃' 시인 나태주의 특강을 듣는다.

이어지는 시간은 국악 한마당에서는 진도아리랑과 판소리 따라 부르기 등을 한다. 이후 반편성, 방 배정이 끝나면 하린 시인의 특강과 시낭송이 진행된다.

29일 오전 9시에는 답입의 창작지도가 예정돼 있다. 신달자 시인의 특강에 이어 레크리에이션, 동

시&수화의 시간이 펼쳐진다.

오후에는 고정욱 동화작가의 특강이 진행된다. 동화에 대한 다채로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희망자에 한해 제2회 시낭송대회도 펼쳐진다. 아울러 허형만 시인과 김선태 시인의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저녁에는 김남규의 사회로 시낭송과 친목 시간이 진행될 예정이다.

30일에는 해변시인학교 백일장, 시화 그리기, 돌그림 대회, 부채시화만들기, 캘리그래피쓰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11시부터는 안도현 시인의 특강이 열려 시 창작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날인 31일에는 답입 창작지도, 정일근 시인의 특강, 팬 사인회, 시상식 등이 열린다.

갯벌체험 등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진행되

며 각반마다 담임과 부담임을 지정해 안전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주최 측은 현재까지 광주문인협회 이근모 회장, 양동률 광주전남열린시학회 회장 등 문인 100여 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차박과 캠핑(텐트) 가능하다. (참가비는 3박 4일, 체험비와 간식비 포함 비숙박은 2만원, 학생 7만원, 일반인 12만원) 외 부에서 오는 참가자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문의 061-542-1005.

한편 시인인 이지엽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장은 "참석자들은 시인의 창작 지도와 아울러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과 무더위에 지친 시간을 해변시인 창작학교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훌훌 날려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달 3일,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는 매우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부산시가 오는 2025년 개관예정인 '부산국제아트센터'와 2026년 문을 여는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알리고, 지역의 클래식 저변확대를 위해 '미리 만나 부산국제아트센터, 클래식 파크 콘서트'를 개최한 것이다. KBS교향악단의 공연과 유명 오페라 아리아 등이 선보인 이날 행사는 큰 화제를 모았다. 공연의 완성도 뿐만 아니라 부산의 대표공연장의 건립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공연장 개관을 기념하는 축하 음악회는 많지만 개관까지 2-3년이 남은 시점에 '분위기'를 띄우는 이벤트는 찾아 보기 힘들어서다.

지난 2012년 여수시 망마산 자락에 들어선 GS칼텍스 예술마루는 도시의 색깔을 바꾼 대표적인 명품공연장이다. 예술마루가 개관하기전만 해도 변변한 전시장, 공연장이 없는 문화불모지였지만 지금은 아티스트들이 한밤중 서고 싶은 무대로 예술마루를 꼽을 만큼 전국구 문화발전소로 자리잡았다. 그런 점에서 개관 32년만에 지난 6월 재개관한 광주예술의전당(옛 광주주예회관, 전당)은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전당이 시민들과 유료회원을 초청한 '간담회 & 전당투어'에서 3년 동안 291억 원의 예산을 들인 리모델링에도 불구하고

## 광주예술의전당이 통하려면

부산시가 이날 음악회에 공을 들인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지난 15년 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2008년 원도심 개발 이익의 사회환원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부산시에 오페라하우스 건립기금으로 1000억 원을 제안한 이후 시민들 사이에는 타당성 등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부지선정에서부터 건설공법, 명칭, 콘서트, 운영주체를 놓고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무엇보다 이날 음악회에서 단연 시선을 끈 이는 세계적인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인 정명훈(70)이었다. 근래 국내에서 보기 힘든 그가 이날 무대에 오른 건 오페라하우스와 관련이 있었다. 부산국제아트센터와 오페라하우스를 총괄하는 초대예술감독으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명훈 감독은 두 공연장을 대표할 음악제 구성 등 핵심콘텐츠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시는 정명훈 예술감독 선임을 통해 오페라하우스 운영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 올려 글로벌 문화도시로 거듭난다는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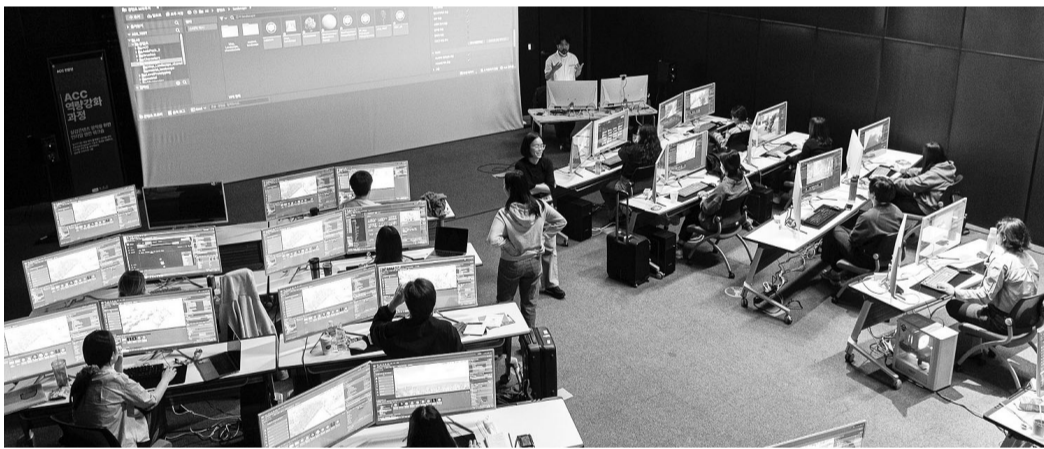
획이 균일하지 않고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끌어 올리는 중장기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물론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디지털 콘솔 교체 등으로 다양한 장면 연출과 무대의 빠른 전환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클래식 전용홀로서의 한계 뿐만 아니라 대형 공연장의 위상에 걸맞은 대표 프로그램 등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특히 지역 문화계에선 시민들의 제안으로 이뤄진 '예술의전당'이라는 새 명칭이 광주의 색깔을 살리지 못하며 꼬집는다. 동일한 명칭의 공연장이 서울, 세종, 대전, 의정부 등 전국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공연장은 단순한 무대가 아닌, 도시의 품격을 상징하는 바로미터다. '잘 만든 공연장'은 공연의 퀄리티를 높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세워준다. 전당이 '무늬만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다른 곳에서 접하기 힘든 기획력과 콘텐츠를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3년이라는 '긴 공백'을 지켜보준 시민들에 대한 예의다. <문화·예향국장, 선임기자>

# 영화 아바타 속 '모션 캡처' 기술 배워볼까?

ACC, 다음달 12~19일  
미디어 퍼포먼스 제작 교육 개설



전문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과정 모습. <ACC 제공>

사람이나 동물 등의 움직임을 토대로 만화화 영화, 게임 등에 재현하는 모션 캡처를 기반으로 미디어 퍼포먼스를 제작하는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을 오는 8월 12-1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창작자·예술가를 대상으로 ACC 창작·제작 기반 시설을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언리얼 엔진과 모션 캡처를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 제작 워크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 8회 62시간. 교육과정은 언리얼 엔진, 3D 그래픽, 퍼포먼스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향후 팀별로 제작한 작품은 문화전당 창작·제작 스튜디오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언리얼 엔진'은 고품질 상

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평면 및 입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게임과 같은 상호작용형 콘텐츠 외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활용된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15명을 최종 선발하며, 광주지역 외 거주자에게는 숙소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무료 강의' 광주영화학교 수강생 모집

단편 제작 등 45회 수업

영화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광주영화학교'가 올해도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0년부터 광주영화영상인연대가 기획·운영해 5회차를 맞은 이번 교육은 약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학교는 총 6개 트랙으로 구성됐다. '단편 영화 제작'부터 '연기 워크숍', '영화비평', '장편 시나리오 완성', '다큐멘터리 기획', '해외영화수급과정' 등이며 총 45회차 수업에 144시간 강의를 진행한다.

6개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수강신청할 수 있

다. 다큐멘터리 기획반은 '육상자국', '40' 등으로 알려진 양주연 감독이 강사진으로 나서며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도 특강에 나선다. 올해 신설한 '해외영화 수급과정+a'도 새롭다. 영화산업 자체에 대한 실무 배우는 총 2회차 강의로 영화제 프로그램 수급, 외화 수입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단편영화 제작반 '비포 무비 라이즈'는 창작자 경험에 따라 기초반(총 15회차)과 심화반(총 10회차)으로 나눠 운영한다. 수강료 무료. 광주독립영화관에 전화 문의 가능.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30분 소요



☎(유)신진해운 061)244-0522